

“만권 책 쌓아두고 고아한 취미생활”

조선후기 서적수입과 장서가들 ... 강명관 교수 논문에서



18, 19세기의 문인 지식층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책을 수입했고, 장서취미를 그들 특유의 생활문화로 정착시켰다. 그에 따라 수만권의 책을 소장한 장서가들이 대거 출현했다. 이런 현상은 당대의 문화와 학문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유신, <가현관매도>(18세기 말), 개인소장.

을 날마다 시중에 나가 책의 목록을 베껴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두루 물어보고 비싼 값을 아끼지 않고 구입해 간다. 그래서 조선에 도리어 이서(異書)의 소장본이 있다.”

조선 지식층의 중국서적에 대한 관심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크게 증폭된다. 임진왜란 후 중국인이 대거 입국해 중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중국문단이나 책에 대한 정보를 소상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허균의 경우 1614년과 1615년 두차례 북경에 갔을 때 4천권의 책을 사왔고, 이의현(영조때 영의정)도 1720년 북경에 갔을 때 서화를 제외하고도 53종 1416권의 책을 사왔다.

책은 주로 북경의 거대한 서적시장이었던 유리창(琉璃廠)에서 구입했다. 명나라 말기 이래 강남지방에서 민간 인쇄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했고, 여기서 출판된 책들이 유리창으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유리창 서점가가 특히 번성하게 된 것은 건륭(1735~96)때부터인데, 이 무렵(1766)에 북경에 갔던 실학자 홍대용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서점은 일곱이 있다. 3면 벽으로 돌아가며 수십종의 시령을 달아매고 상하로 부서별(분야별) 표시를 해서 질서정연하게 진열해두었는데 각 권마다 표지가 붙어 있다. 한 점포 안의 책만도 수만권이나 되어 고개를 들고 한참 있으면 책이름을 다 보기도 전에

조선후기, 특히 문예부흥기라고 할 18, 19세기 문인 지식층의 책에 대한 ‘욕심’은 대단했다. 그들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책을 수입했고, 장서취미를 그들 특유의 생활문화로 정착시켰다. 책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소장하는 데는 막대한 재력과 문화적 수용력, 그리고 가문의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따라서 책의 수입과 장서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경화세족(京華世族·서울에 대대로 사는 양반가문)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근 부산대 강명관 교수(한문학)는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민족문화사연구》 제9호)이라는 흥미 있는 논문을 통해 장서가의 출현을 18, 19세기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 시기 ‘경화세족’의 문화행태에 주목했다. 다음에 그 골자를 간추린다.

북경의 ‘유리창’이 공급원

민간영역의 중국서적 수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부터의

일이다. 경전 따위 고전적 저작물이나 실용서는 그 전에도 많이 수입되었지만, 중국 당대의 문인 지식인들의 저작들은 16세기 말경에 와서야 비로소 조선 지식층의 독서 범위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명나라의 문인 진계유(1558~1639)는 당시 조선인의 서적 구입열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조선인은 책을 가장 좋아한다. 사신의 입공(入貢)은 50인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옛책과 새책, 패관소설로서 조선에 없는 것

데리다: 데리다 철학의 개론적 이해

H. 키멜레 지음/박상선 옮김/176면/6,000원

“데리다에 의한 연구와 데리다에 관한 연구들의 교차”에 대해 다루고 있는 데리다 사상 입문서. 철학사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데리다의 기본 사상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인간의 사명

J.G. 피히테 지음/한자경 옮김/208면/8,500원/양장

독일 관념론의 장을 연 철학자로 평가되는 피히테의 원전.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화두로 하여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그리고 신학적 물음까지 두루 다루고 있다.

철학적 인간학

G. 해프너 지음/김의수 옮김/256면/8,500원

철학의 핵심 주제인 인간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철학적 인간학” 입문서. 인간 현존재의 기초 차원들로 언어성, 사회성, 역사성 등을 제시하고, 인간 존재에 고유한 현상으로서의 의식과 의지의 자유를 집중 조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J.O. 엡슨 지음/정영란 옮김/224면/9,500원/양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대한 입문서로 적합한 이 책은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원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그의 이론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눈이 먼저 핑 돌아 침침해진다.”

당시 북경에는 서반(序班)이라는 말단 구실아치들이 있어 이들이 부업으로 서적 중개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조선 사신들이 책을 사고 싶으면 역관(譯官)을 통해 이들에게 의뢰했다. 한편 국내에서 서적의 유통을 맡은 것은 역관과 서쾌(書僮)라는 서적 중개상이었다. 역관이 중국에서 책을 수입해 오면 서쾌들이 국내 판매를 담당했다. 이들은 또 몰락한 양반집안의 가장(家藏) 서적이 시중에 흘러나오면 이를 채차 유통시켰다. 이들이 장서가의 출현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서울 장안에 서점이 등장한 것은 18세기 말경부터의 일이다.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면 종각과 광통교(광교)일대, 그리고 오늘의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에 서화와 서적시장이 형성된다. 이렇듯 시정에서 책의 유통이 활발해진 것도 장서가의 출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자자손손 대를 물린 장서가들

19세기의 문인 흥한주는 어느 글에서 중국의 이름난 장서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장서가를 소개하는 가운데 심상규·조병귀·윤치정·서유구 등과 이경억(李慶億)의 집안을 대표적인 장서가로 꼽았다. 이밖에도 서울에서 천권, 만권 정도의 장서가는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18, 19세기의 대표적인 '경화세족' 임은

물론이다.

그중 4만권 이상을 소장했다는 심상규(1766~1838)는 당대의 명문인 청송심씨로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고, 3~4만권을 소장했던 조병귀(1801~1845)는 풍양조씨 세도의 핵심인물이었던 조만영(趙萬永)의 아들이다. 이 집안은 조엄-조진관-조만영-조병귀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별열가문이다.

한편 이경억 가문의 장서란 실제로는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의 장서를 말한다. 이하곤은 경주이씨로 그의 가계는 이시발(형조과서)-이경억(좌의정)-이인엽(이조판서·대제학)-이하곤으로 이어지는 명문가이다. 이하곤은 1711년 충청도 진천으로 낙향, 서재 이름을 만권루(萬卷樓)라 짓고 "책을 몹시 사랑하여 누가 책을 파는 것을 보면 옷을 벗어서라도 그것을 샀고, 비록 병석에 있을 적에도 하루도 손에서 책이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실학자인 서유구(1764~1845)는 달성서씨로 현종때 이조판서·대제학을 지낸 인물인데, 그의 가계 역시 서문유-서종옥-서명응-서호수-서형수-서유구로 이어지는 혁혁한 별열가문이다. 서유구의 장서는 그의 아버지 서형수의 장서를 물려받은 것이니 2대 이상에 걸쳐 형성된 것이었다. 서형수는 집 뒤에 당(堂)을 지어 만권의 책을 그 안에 쌓아놓고 집안의 자제들에게 그곳에 모여 학업을 닦게 했는데, "자손 중에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는 자가 있으리라"는 뜻에

서 당호를 필유당(必有堂)이라 이름했다.

이밖에도 이름난 장서가들이 많았다. 숙종때 소론의 영수로 여덟번이나 영의정을 지낸 최석정(1646~1715, 전주최씨), 영조때 이조판서·우의정을 지낸 원인손(1721~74, 원주원씨), 순조때 영의정을 지낸 이시수(1745~1821)와 대제학을 지낸 이만수(1752~1820, 연안이씨) 형제, 그리고 안동김씨 세도의 중심인물이던 김조순(1765~1831)의 가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상의 인물들은 거의 예외없이 18, 19세기의 경화세족으로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가문 출신이다. 이들의 장서취미는 단순히 서적의 집적(集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장서를 골동서화와 함께 그들 특유의 세련된 생활취미·생활문화로 발전시켰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중국서적의 대량 유입과 장서가의 출현은 18, 19세기의 문학과 학문 전반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소설의 유행과 문체의 변화, 고증학풍의 성립 등은 그 특징적인 징후들이다. 이는 나아가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동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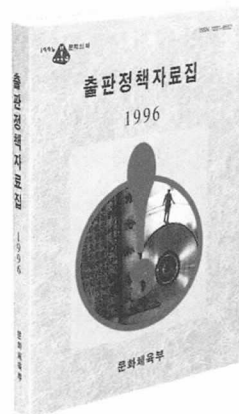
자료집

95년 출판현황과 정책

《'96 출판정책자료집》

국내 출판계 현황과 관련정책을 정리,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 문화체육부의 《출판정책자료집》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95년 말 현재 국내 출판사는 11,571개사로 지난 10년 동안 439%의 외적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95년 한해동안 총 2만 7407종이 나왔고, 전체 발행부수는 5260부로 꾸준히 증가상태를 나타내며 평균 책값은 9507원으로 지난해보다 16.1% 비싸졌다.

이밖에도 《출판정책자료집》에는 인쇄소, 서점, 출판물 유통구조 등 출판현황과 세계



출판동향,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과학출판 진흥 등 각 분야별 출판진흥정책의 내용을 실고 있다. 부록에는 각종 통계와 관련단체 정보지 현황, 출판관련 법규도 실었다. 문화체육부/A5신/414면/비매품

주요취급간행물

- 신 문: NEW YORK TIMES/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LE MONDE/LE FIGARO
FRANKFURTER ALLGEMEINE/HANDELSBLATT
DIE WELT/DIE ZEIT/SOUTH CHINA MORNING POST
ARAB NEWS 외
- 시 사: NEWSWEEK/PEOPLE/FORBES/BUSINESS WEEK/LE POINT
L'EXPRESS/PARIS MATCH/LE NOUVEL OBSERVATEUR
DER SPIEGEL/STERN/FOCUS/WIRTSCHAFTS WOCHEN
외
- 컴퓨터: COMPUTER GAMING WORLD/COMPUTER SHOPPER
GAME PRO/UNIX REVIEW/BYTE/PC WORLD
PUBLISH/INTERACTIVITY/VIDEO GAMES 외 다수
- 패 션: VOGUE/ELLE/COSMOPOLITAN/HARPER'S BAZAAR
VOGUE PARIS/MARIE CLAIRE/DEPECHE MODE
EMPERIO ARMANI/FASHION LINE/NEXT FASHION 외
- 기 타: INTERVIEW/ENTERTAINMENT/VARIETY /BILLBOARD
ROLLING STONE/SPORTS ILLUSTRATED/GOLF DIGEST 외

세계의 신문·잡지



SINCE 1963
韓國出版貿易(株)
Korea Overseas Publications Inc.

정기 구독 안내

- 매일 항공편 직수입 체계로 보내드립니다.
- 가격이 인상되어도 주문시 가격으로 구독하시게 됩니다.
- 원하시는 분께는 「세계의 신문·잡지」 책자와 SAMPLE을 보내 드립니다.

- 전화주문 : (02) 735-5401/3
- FAX주문 : (02) 736-3463, 735-5404
- 우편주문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60